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음 12월 17일) 제19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제3회 시·도지사간담회가 열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 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발전 틀 동서발전 축으로 전환”

### 송 지사,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서 제안

“경제성 중심 운영중  
예타제도 수도권에 유리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시도지사 간담회’는 행안부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장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는 곧바로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서 3가지 사안에 대한 평소 소신발언을 통해서 이를 제안하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업동맹 집행단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을 이제는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또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는 새 정부의 4대 복합 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천명됐다. /채규남 기자

## 맞춤형 기업애로해결 전담반 가동

전주시는 지속되는 경기하락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과 판로, 투자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을 가동한다.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수출과 자금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전담반을 가동,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처리해 침체에 빠져 있는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업 기 살리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로 활기찬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총 2개 팀으로 구성된 기업애로해결 전담반은 제조업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총 200여개 업체를 방문해 현장에서 맞춤형 애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1팀은 기업지원과 자금, 해외 마케팅, 공장등록을 지원하고 2팀은 수출과 환경개선, 향토기업 및 바이전 주 지원을 각각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빠르게 제거,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성장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애로사항 해결이 매출 및 수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경제구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애

### 전주시, 창업기업 등 중심 올해 200여개 업체 방문키로

로사항 해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렴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기 살리기 인큐베이팅’ (20개 사 목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인큐베이팅은 전담반이 매월 1회 이상 산업단지에서 신규 공장등록한 기업을 방문해 공장등록부터 1년간 신생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연계해 창업초기 봉착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채규남 기자

### 전북현대, 13일 전주시 가시와레이슬과 AFC 예선

전북현대가 2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목표로 대장정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전북현대는 오는 13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시와레이슬(일본)과 AFC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을 갖는다. 전북 현대는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추첨 결과 가시와레이슬과 킷치(홍콩),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텐진(중국)과 함께 E조에 편성됐다.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은 오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32팀이 참가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규남 기자

## “아중호수 관광명소 조성 장기적 플랜 필요”

### 전주시의회 의정 중계석 → 관련기사4면

### 김윤철 의원, 5분발언서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 아중호수 관광명소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침체된 아중호수의 활성화를 위해 아중호수의 지리적 환경과 가치를 살리고 전주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먼저 “아중호수가 지역의 명소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찾아 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아중호수 맞은편 아중호수 홍보를 위



한 조형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주역과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명품버스 운행코스에 아중호수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신설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는 “동물원에서 치명자산까지 새로운 노선으로 거듭난 전주 명품버스 1000번은 보다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전주 여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버스 운행코스에 아중호수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동부권 지역 우아사거리 근처나 호수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대형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수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끝으로 아중호수 주변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경관콘텐츠를 개발지원을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어떻게 하고 있나?”

### 김진욱 의원 “전주시 대책, 이미 실현해온 정책일 뿐”

전주시의회 김진욱 의원은 1일 제3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신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품목 및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기차·친환경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책은 과



거에도 이미 실현해온 정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가 발표한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보유대수를 줄여 자동차 운행을 강력하게 줄여야만 미세먼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운행을 줄여야만 교통 체증 문제를,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중심 문화에 익숙한 시민들, 자동차 중심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들과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두려워 회피하거나 쉬운 길만 선택한다면 아무것도 변화될 것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무주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 관련기사 16면

축! 제4회 무주군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 전주시민께 묻습니다

이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1. 전주시민 누구나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
2.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
3. 짜릿함과 즐거움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4. 마음을 힐링해 주는 곳
5.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



전주시설공단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화산체육관, 병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자연건강로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덕진수영장, 승마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게이트볼장, 론볼장, 덕진체력공원, 아중호수체육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공원, 숲내체육공원, 고덕축구장, 교통약자이동, 전주승화원, 봉안당(원), 효자공원, 공동묘지, 효자자연장